

# 전북 1000리길 걷기 본격 시작

전주 건지산길부터 시작  
역사·문화자원 탐구 진행  
도내 생태관광 활성화 기여

전북 1000리길 탐방 활성화와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 중인 전북 1000리길 동호회가 24일 전주 건지산길 걷기행사를 시작으로 전북 1000리길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약 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걷기행사에서는 1000리길 걷기를 비롯한 역사·문화자원 등의 탐구와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건지산길 구간은 전주동물원 뒷산과 가련산 체련공원 주변을 걷는 코스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앞에서 출발하여 오송재, 대지마을, 건지산 정상, 조경단을 거쳐 원점으로 돌아오는 약 8km(2시간 30분 소요) 코스이다.

주변에는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되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자리하고 멸종 위기 희귀동식물인 '낙지다리'와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오송재 생태호수공원, 대지마을 주변의 과수원, 상수리, 소나무, 편백나무 군락 등 풍부한 생태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캠퍼스 둘레길로도 널리 알려진 건지산길은 도심 속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오르고 내리며 전



으뜸도정상 시상식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3일 도청 공영관에서 '2월중 학이시습의 날'을 맞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간 업무성과가 우수한 8개 부서를 선정하고 으뜸도정상 시상식을 가졌다.

주의 역사·문화·자연생태를 맞으면서 힐링할 수 있다.

조경단 근처에는 조경단의 역사성을 살린 '입금님 숲'이 조성되어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조선 왕조의 발원지이자 역사와 문

화가 살아 숨쉬는 전주 건지산길 걷기행사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1000리길 걷기행사를 하고 전북 1000리길 걷기 문화 확산과 전북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복 동호회 회장은 "전북 1000리

길 알리기와 탐방 활성화를 본격 시작했다"면서,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전북의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지역의 새 길 만들 것”

이학수 전북도의원, 정읍시장 출마 선언

이학수(59)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의원이 오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학수 의원은 지난 23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정읍의 ‘굵은 소나무’로 살아온 시간, 20년 정치 인생이 구축해 온 중앙정치권과의 소통 채널, 8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읍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어렵고도 중요한 시점에서 정읍시장의 중책을 맡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공약으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30개 기업의 유치와 3천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농산물 생산과 유통까지 해결하는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 확대 ▲전북 관광1번지’를 목표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가족·체험·세대별 관광상품 개발 ▲그물망처럼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도시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도시계획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호남고와 전주대를 졸업한 재선 도의원으로 한국청년회의소 전북지구 회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 “올 1분기 GDP 성장률 0.2%p 상승”

靑, 평창올림픽 성과... “1조4000억원 소비 지출로”

청와대는 23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p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과’ 자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1조4000억원의 소비 지출을 통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0.2%p 가량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내·외국인의 경기장 방문과 주변 관광을 통해 5000억원, 대회 경비 등으로 9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의 소비가 이뤄졌다. 이와 같은 소비로 연간 GDP 성장률이 0.05%~0.06%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평창올림픽 소비지출 증대 효과 추정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1978억원), 관광 매출(1022억원) 등으

로 내국인의 소비가 3000억원 가량 이뤄졌다. 외국인 소비액 2000억원과 대회 경비로 지출된 9000억원을 더해 총 1조4000억원의 소비가 이뤄졌다.

2011년 평창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를 기준으로 소비(2조3000억원) 및 인프라 투자(11조4000억원) 등 지출은 총 13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6조5000억원의 GDP가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관광·음식·숙박·건설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총 14만 명의 고용이 늘어난 것과 동계스포츠를 중심으로 기대되는 항공·관광 증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스포츠와 이를 활용한 겨울 축제 확대 등 관련 산업의 성장, 올림픽 성공개최로 인한 국가이미지 상승과 올림픽 후원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을 평창올림픽의 기대효과로 분석했다.

/김진성 기자

## 올 시·군 대표축제 평가시스템 운영방안은?

도, 현장평가 이원화·평가위원 5명으로 확대 등 도입

전북도는 23일 시군 대표축제 평가시스템 효율적 구축을 위한 축제평가체계 개선 등 2018년 ‘시·군 대표축제 지원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시군 대표축제 평가시스템 개선 주요내용으로는 현장평가 이원화 및 평가위원 확대(3→5명), 컨설팅단 모니터링 신설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했다.

현장평가는 담당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 5명으로 구성하여 문제부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을 준용한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는 도·내외 비율 2:2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특히, 공정성 있는 현장평가 추진을 위해 위탁기관과 함께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운영, 방문객 수, 소비지출 등 빅데이터 분석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2월부터 축제분야 전문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 의견수렴을 통해 2018년 ‘시·군 대표축제 지원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시·군에 시달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컨설팅 및 모니터링, 현장평가 수행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세부실행계획안을 수립, 축제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컨설팅단 모니터링은 전문가(2인)와 민간인(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군 자체용역 수행자는 현장평가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공

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2018년 ‘시·군 대표축제 평가시스템 설명회’를 통해 민간인 평가지표 및 참여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전북 축제를 연계한 ‘축제투어 상품’ 등 시·군 대표축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시군대표축제 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3월부터 사전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장평가, 방문객 계측, 만족도 조사, 사후컨설팅을 추진한다.

도 박명용 관광총괄과장은 “축제 차별화와 매력적인 콘텐츠 발굴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김윤덕 신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임



김윤덕 전 국회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3일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 도지사 출마로 공식 있었던 도당위원장에 이날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윤덕 민주당 전주시 완산구갑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부안 출신인 김윤덕 신임 도당위원장은 풍암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